

임지현 '반전의 세계사' 홀로코스트와 나크바, 그리고 가자

나치 대학살 겪은 민족, 가자지구 인종청소 가해자 되다

임지현
서강대 석좌교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멈췄지만
팔레스타인 민간인 대규모 살상

“무고한 사람은 없어” 무차별 공습
15개월간 어린이 1만7818명 사망

1948년 인티파다 궤멸적 진압 후
유대인 방어 넘어 무자비한 공격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지난 1월 19일 발효된 휴전조약으로 일단 포성을 멎쳤다. 하마스의 무차별 테러에서 비롯된 방어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과 공습은 사실상 일방적인 학살에 가깝다.

양측의 사망자 숫자가 무엇보다 전쟁의 실상을 잘 말해준다. 가자지구 정부 발표에 따르면 15개월 전쟁 기간 중 어린이 1만7818명을 비롯한 4만 670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죽고 부상자는 11만 명에 이른다. 민간인 1200여 명, 군인 891명 등 2000 명이 조금 넘는 이스라엘인 희생자 수와는 비교가 무의미하다. 더구나 팔레스타인 사망자의 60-80%는 비전투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민간인 사망 비율은 21세기 어느 전쟁보다 높다.

팔레스타인 사망 기대수명 11.5년 줄어

당사자들의 통계가 못 미처하면 유엔이 만든 세계 인구 전망 통계도 있다. 이에 따르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2022년 76.7세에서 2023년에는 65.2세로 떨어졌다. 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11.5년이 줄어든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현재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의 기대수명 격차는 무려 17년에 이른다. 전쟁이 지속될 지금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이다.

1980년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정권 당시 백인과 흑인의 기대수명 격차가 15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사이의 17년 격차는 그 무게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또 가자지구의 경우에는 민간 주택에 대한 파괴도 심각해 타전을 잃은 이들이 전체 주민의 90%에 이른다. '주거지 학살(domicide)'이라고 불려 마땅한 수준이다. 주택의 대량 파괴는 대규모의 강제 이주를 낳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비극적이다.

가자에 아우슈비츠는 없지만, 제노사이드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스라엘 역사학자 아모스 골드버그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살육과 파괴는 인티파다(Intifada: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봉기)를 경험한 많은 팔레스타인인에게 낯선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작금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압도적으로 높은 민간인 살상 비율 때문에 섬뜩하다.

이토록 높은 민간인 살상 비율은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AI)에도 그 원인이 있다. 과거 이스라엘 군인들한테는 '쏘지만 운다(shooting and crying)'라는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주저함이 있었다. '양심적 명령 거부권'도 자주 발동됐다. 이번 전쟁은 달랐다. 공격 목표를 설정하고 타격하는 인공지능의 기계적 합리성이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자 도덕적 주저함이 사라지고 민간인 사망률이 급증했다.

네타나후를 위시한 이스라엘 지도부의 학살 의도도 분명했다. "가자에 무고한 사람은 없다" "이스라엘의 적성 민족은 반드시 분쇄되어야 한다" 등 지도부의 발언은 분명하게 제노사이드의 의지를 천명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제노사이드 판결에서 중요하게 본 제노사이드의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유럽에서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겪은 민족이 중동에서 제노사이드의 가해자가 된 세계사의 역설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전후 이스라엘인들의 정체성이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면, 팔레스타인인들의 정체성은 '나크바(al-Nakba)'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아랍어로 대재앙을 뜻하는 나크바는 마치 유대인들

이 대재앙을 뜻하는 '쇼아(Shoah)'라는 말로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것과 흡사하다. 나크바는 1948년 이스라엘 독립 당시 유대인 준군사단체와 신생 독립국 이스라엘 군대가 저지른 학살과 강제 추방 등으로 팔레스타인 선주민 공동체의 괴멸된 '인종 청소'를 지칭하는 역사적 용어로 출발했다.

1948년 전쟁 당시 약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강제 추방됐다. 그 와중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많은 마을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학살과 인종 청소가 일어났다. 무장한 이스라엘의 준군사집단 전사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마을 공터로 끌고 가 집단 학살하거나 강제로 소개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총력의 공동 우물에 티푸스 세균을 풀어 전염병이 돌고 결국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세균전의 기록도 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대량 학살은 적게는 20건, 많게는 70건에 이르며 약 500개가 넘는 팔레스타인 촌락이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로 변했다. 공동화된 마을은 지도에서 없어지거나 유대인 이주민들이 들어와 히브리 이름으로 바뀌어 유대인 마을이 되었다. 유대계 무장단체의 팔레스타인 여성들에 대한 집단 강간과 유아 살해의 사례도 적지 않았다. 홀로코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유고에서 일어난 인종청소를 떠올리게 한다.

아인슈타인과 한나 아렌트 등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유대계 지식인들이 메나헴 베긴의 '자유당'을 꼭 집어 그 조직이나 방법, 정치철학 등이 나치와 파시스트당과 매우 유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때의 일이다. 1948년 12월 4일자 뉴욕타임



지난해 5월 파리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 공습에 항의하는 한 시위자가 이스라엘 총리 네타나후와 히틀러의 모습이 겹쳐지는 표지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가자지구. 이스라엘 공습으로 파괴된 집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앉아있다. /연합뉴스

스에 실린 공개편지에서 이들은 아랍인 마을 '데이르 야신'의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베긴을 이스라엘의 파시스트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1930년대 폴란드에서 전투적 시온주의의 세례를 받은 베긴은 훗날 이스라엘 수상(1977-83) 재직 당시 레바논 침공을 주도하고 베이루트의 샤틸라 난민캠프 학살을 묵인했다. 이스라엘의 우군인 레바논 기동군사 집단 팔랑헤가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을 학살하는 동안 이스라엘 정규군은 난민 캠프가 있는 사브라 지역을 봉쇄한 채 학살을 방조했다.

학살에 대한 세계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베긴은 사과를 꺼낸 "지구상 어디에도 유대민족에게 도덕성을 가르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나치의 학살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유대인 난민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홀로코스트라는 나치의 반인륜적 범죄에 눈을 감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홀로코스트의 공범자 혹은 최소한 방조자라는 질타였

다. 베긴은 한참 더 나갔다. 팔레스타인 민족해방전선의 야세르 아라파트를 히틀러와 비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공격성은 "150만 명의 아이들을 나치의 가스실에서 잃은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당화했다. 이는 베긴 개인의 돌출 발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1967년 6월 전쟁(제3차 중동 전쟁, 6월 5일-10일)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쟁에서 한 번이라도 지면 절멸될 것이라는 공포는 여전했다.

2015년 이스라엘 의회 인종차별 합법화

6월 전쟁으로 새로 획득한 영토를 편입하면서 새로 그른 국경선을 이스라엘에서는 '아우슈비츠 라인'이라고 불렀다. 마지노선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또 아랍인 암살을 주입으로 결성된 특수부대를 아우슈비츠의 살인마 이름을 따 '맹켈레 부대'라고 부르려는가 하면, 이스라엘 군대 내부에 '아우슈비츠 소대' '데미야누크 부대(데미야누크는 나치 강제 수용소의 악명 높은 경비로서 후에 전범 재판 받은 인물)' 등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는 별명이 많았다.

가장 암울은 이스라엘 국방부가 팔레스타인의 인티파다 봉기 당시 자기 병사들에게 바르샤바 게토 봉기 기념관 방문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조치였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1943년 게토 봉기를 잔인하게 진압한 나치 군대의 모습에서 인티파다에 나선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자신들의 자화상을 떠올릴까 두려웠던 것이다.

2015년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는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국가'라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통과함으로써 국민을 1등 시민 유대인과 2등 시민 아랍인으로 나누는 인종차별을 합법화했다.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와 이스라엘의 식민정책이 자주 비유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21세기까지의 제노사이드는 돌발사태가 아니라, 1948년 나크바 이래 자유주의적 시온주의가 혈통주의적 시온주의로 전락해 온 이스라엘 역사의 산물이다.

홀로코스트의 교훈은 어떻게 하면 다시 홀로코스트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시온주의적 질문을 넘어 우리 중 누구라도 홀로코스트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깨달음에 있다. 한국 사회가 기억하는 식민주의의 교훈은 무엇일까?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임지현 서강대 석좌교수. 서강대에서 서양사 전공. 대표 저서로 '희생자의식 민족주의'(2021), '기억 전쟁'(2019), '대중 독재'(2004), '우리 안의 파시즘'(공저 1999) 등이 있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